

# “반려인·비반려인 서로 배려하며 공존해야”

송정은 광주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며 나눔의 가치를 늘 가까이에서 느껴왔습니다.”

송정은(67·사진) 광주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이 동물의료 현장에서의 실천을 지역사회 나눔으로 확장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송 원장은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원 기부를 약속하며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200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가입은 지난 2010년 광주 1호 아너 회원 탄생 이후, 이어져 온 지역 나눔의 흐름이 200번째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광주 출생인 송 원장은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수의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서울에서 임상 경험을 쌓아 광주로 내려와 지난 2016년 광주·전남 최초의 2차 동물병원인 ‘광주동물메디컬센터’를 열어 중증·응급 반려동물을 24시간 진료하

지역 최초 헌혈전 캠페인 선도

3677동물구조대...심 방문 진료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200호 가입

“성숙한 펫마켓 문화 자리잡길”

는 체계를 구축했다.

현장에서의 문제의식은 공익 활동으로도 이어졌다. 송 원장은 수의사로 일하며 수술이 필요한 반려동물에 비해 혈액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제감한 후, 이를 계기로 2018년부터 헌혈전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송 원장은 “대형견이 정기적으로 혈액을 기부해 수술이 필요한 반려동물을 돕는 헌혈전 캠페인을 매달 한 차례씩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보호자들과 지역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지역 구조활동도 그의 대표적인 실천 중 하나다. 송 원장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022년



부터 ‘3677동물구조대’를 결성해 흉도, 비금도, 소정도 등 섬 지역을 찾아 유기·방치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겨울을 제외한 기간 동안 2개월에 한 번꼴로 섬을 찾고 있으며 중성화 수술과 치료, 주민 교

육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비금도에서 목줄이 목에 깊이 파고든 개를 구조해 치료한 뒤 해의 입양까지 연결했던 경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꼽았다.

송 원장은 “심에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이 많다”며 “직접 가보면 어디가 아픈지 한 눈에 보일 정도로 방치된 경우가 적지 않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역시 이러한 생명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다.

동물의료와 동물복지 영역 안에서 실천해 온 나눔을 넘어 이제는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나눔의 폭을 넓히고 싶었다는 것이다.

송 원장은 “수의사로서 업계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사회와 나누고 싶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주변 수의사들도 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존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펫마켓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연상기자

정철 도의원, ‘초등돌봄협의체’ 위원장 선출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사진)이 ‘전남 온동네 초등 돌봄 협의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최근 전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전남 온동네 초등 돌봄 협의체 1차 협의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이끌게 됐다.

‘전남 온동네 초등 돌봄 협의체’는 전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돌봄기관, 학부모 단체, 지역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기구다. 학교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통합 돌봄 체계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다.

특히 학기 초마다 반복되는 돌봄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 돌봄교실과 지역 돌봄시설간 연계를 확대하고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과 작은 도서관 등 생활권 내 공간을 활용한 돌봄 모델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들이 지역 돌봄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 개선과 정보 제공 방식 다각화 등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철 의원은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기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돌봄 협력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여수 쌍봉지구대,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는 “최근 쌍봉동 자율방범대와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와 상가 밀집 지역 일대에서 합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약물 및 음주운전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단을 나눠주며 ▲약물 운전 처벌 및 면허취소 기준 강화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상속 음주운전자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및 차량 압수 등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장원서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든든한 지역 치안 파트너인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광주 우산지구대, 어린이 맞춤형 안전교육

광주 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는 26일 북구 효동 단설 유치원을 찾아 어린이 13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찰관이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눈높이에 맞춰 체험형 교육을 통해 일상 속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강한서 우산지구대 1팀장은 “아이들이 경찰을 친근한 이웃으로 느끼고 자연스럽게 안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순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찬용기자

결혼

▲이중주(전남매일 주필)·이지영씨 아들 준영군·양상원·김점숙씨 딸 한경양=26일(일) 오후 3시 토브헤드(서울 강남구 논현동 72-8).

부음

▲김순덕씨 별세, 백희순·영복·예자·심자·인자·경자씨 모친상=발인 27일(금)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02호(010-3608-4963).

## 광주매일신문, 지역 웹툰 작가와 협약...연재 본격화

내달부터 주 1회 지면·온라인 게재

광주매일신문이 지역 웹툰 작가들과 협약을 맺고 연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광주매일신문은 26일 오후 본사에서 지역 웹툰 작가들과 ‘프리미엄 웹툰 연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과 국병석 BS 대표, 송재영 스토리빌링 대표, 정서현 스튜디오 DARI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반 창작 콘텐츠를 발굴하고, 신진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연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웹툰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홍보 전반에 걸쳐 지



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매일신문은 오는 4월부터 지

면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주매일신문 웹툰’ 섹션을 운영하고, 이들 작가들의 작품을 주

1회 정기 연재한다. 홈페이지에는 웹툰 전용관을 신설해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신진·기성 작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지역의 삶과 정서를 반영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독자층 확대와 콘텐츠 다양성 확보를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다.

광주매일신문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문화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창작자와 매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수 대표이사는 “웹툰은 K-콘텐츠의 확장 속 세계 시장에서도 큰 가능성을 지닌 분야”라며 “신문 지면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지역 창작자들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 펜셀스케치, 파란꿈지역아동센터서 재능 기부

제로웨이스트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펜셀스케치’가 남구 파란꿈지역아동센터에서 예술 기반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한승지 펜셀스케치 대표와 나정숙 강사는 최근 파란꿈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아동 10명의 초상화를 직접 그려주며 정서적 소통을 나눴고, 아동들은 자신의 모습을 작품으로 전달하며 예술이 주는 감동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공유했다.

펜셀스케치는 미술 활동을 기반으로 기후위

기 대응 및 환경보호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재능기부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동아리로, 지역 지원을 발굴해 작품을 반영하는 제로웨이스트 예술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윤영숙 파란꿈지역아동센터 대표는 “이번 재능기부를 통해 아동들이 생활 속 예술적 경험을 확장하는 동시에 환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 옥천농공단지협-해남공고 ‘마이스터고 추진’ 협약

해남옥천농공단지협회가 26일 해남군교육재단에서 해남공업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지정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문 기술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흥콘크리트㈜, ㈜동원, ㈜해원, ㈜뉴텍 등 4개 지역 대표기업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옥천농공단지협회는 마이스

터고 지정 유지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기능 인력 양성 지원,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및 맞춤형 교육 협력, 우수 인재 취업 연계 지원 등에 나선다.

해남공고는 지역 산업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옥천농공단지협회의 관계자는 “오는 6월 마이스터고 지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 담양 수북교회, 취약계층에 물품 기탁

담양군은 26일 “수북면 수북교회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식품을 수북면사무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물품은 방울토마토와 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6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세영 수북교회 목사는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봄기운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서인자 수북면장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주 목사님과 수북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총심한 복지안 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답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월출산국립공원, 민·관 합동 탐방로 안전점검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광주·전남산악연맹과 합동으로 월출산 내 탐방로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암장 개방을 앞두고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낙석 발생 위험이 높은 암장과 급경사지, 추락위험지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월출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월출산국립공원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바위가



많은 암벽장을 이용할 때는 낙석과 뜬 돌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홍철기자